

땅을 살리는 바른 먹거리



박인수

충남 홍성군 흥동면
운원리 풀무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며칠 전 우리 조합 유기농업생산자회 소속회원 몇명이 우연히 만나 우리집에 모여 가벼운 술자리를 만든 적이 있다. 기분 좋은 만큼 술을 마시고 이런저런 흥겨운 이야기를 즐기다 자리가 거의 끝날 무렵 차를 한잔씩 마시자고 아내에게 차끓이기를 부탁했다. 아내는 쟁반에 국산차 여러가지와 커피를 놓고 각자 선택을 하도록 배려하였다. 국산차가 건강에 좋고 또 우리 것이라는 설명을 하였건만 단연 커피주문이 압도적이었다.

그때 한 회원이 “나는 커피에 대해서 할말이 없다. 유기농업한다면서 커피를 꼭 먹어야 개운하니 참 어이없는 일이야.”하며 자신의 기호를 타하는 고해성사를 필두로 너도 나도 한마디씩 한다. “건강 지키자고 유기농업 시작한 놈이 술을 이렇게 먹어대니 원.” “난 또 어떻게! 담배도 아주 꼴초라고.” “미국놈들이 우리에게 수출하는 것은 대부분 중독성이 있는 것이어서 커피처럼 인이 박이잖아. 반면 우리 국산차는 아무리 많이 마셔도 중독되지는 않는 데. 그러니까 없으면 안먹고 만다는거야. 그러니까 또 우리는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거지.” “그 뿐인가, 그 많던 밀재배지역도 깡그리 없애버려 지금은 다시 우리 밀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 생각을 하면 참 어처구니가 없어.” “그런 생각하면 우리 모두 정신차리고 한사람 한사람이 커피를 안마시고……. 등등 일상적인 운동들을 펼쳐야 한다구.” “아마 내 생각으로는 수입 쌀 맛좋고 값싸다고 소비자들 냉큼 냉큼 사먹다간 쌀 재배면적도 없어져 버려 몇십년 흐르면 또 다시 우리쌀 살리기 운동을 해야만 할걸.” “우리 어머니는 작년에 시장에서 양파를 사왔는데 글썽 그 양파가 수입 양파더라고! 한 망태기에 7,000원 주고 사왔다는 어머니 말씀 못 들은 체하고 똥통에다 던져 버렸더니 어머니는 ‘아니! 내돈 내

돈'하시며 펄펄 뛰고 난리셨지만, 몇 수십년 농사경력을 지닌 우리 어머니가 시장서 수입 양파를 사와야 하는 현실이 정말 한심해.” “생산지역인 우리 홍성만 해도 생각없이 시장나 가서 농산물을 산다고 하다가는 반은 수입농



산물이라니까.” “그런데 그 수입농산물이 뭐가? 우리 나라에서도 금지되고(사실 수출 자국에서도 금지되었다.) 있는 맹독성 농약을 살포하고 또 먼 곳까지 썩히지 않고 운반하기 위해 보존료를 과감하게 발라 놓잖아.” “생각해 보라구, 우리네 농산물은 따낸지 며칠이면(대개는 하루만에) 시름새름, 시름시름해지는데 그놈의 필리핀에서 오는 바나나 색깔이 곱디 고운 노란색일 수가 있다. 난 그저 시장에서 바나나 사들고 오물거리며 먹고 다니는 우리 꼬마들을 보면 가슴이 다 썩늘하다니까.” 커피로 시작된 이야기는 우리 엉덩이를 누르며 자연스럽게 수입농산물의 성토대회로 진전 되어 갔다.

수입쌀이
맛 좋고 값싸다고
냉큼냉큼
먹다가는
쌀 재배면적도
없어져버려
몇십년 후에는
또 다시
“우리 쌀 살리기
운동”을
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전에 우리 못살 때 보통가정에서 어디 바나나 구경이나 해 볼수 있었다. 그렇게 자란 애들이 자식 낳고 살다보니 지금 제일 싼 바나나 실컷 사서 먹이자는 보상심리같기도 해서 더 서글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는 먹을 거리들이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치는 것들이잖아. 농약 덩어리 농산물이 좀 많은가. 또 가공식품들은 어땠고. 이렇게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먹어대다가는 정말 혼쫌 날 때가 있을거야.” “신토불이라고 떠들어 대지만 우리땅에서 나는 우리농산물과 농사꾼에게 진정 애정이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래도 우리나라 농업이 살고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지키고 땅을 살리고 우리 미래 인간을 위해선 결국 유기농업을 해야지, 암.”

결국 한숨쉬인 답답함과 그래도 유기농업을 선택한 우리들이 현명하다는 확신이 묻어나는 어정정한 분위기를 남김채 그 술자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70%가
공해로 인한
질병이라는
의학계의 보고가
그저 허구만은
아닌듯하다.
선택의 여지없이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주식류들 모두가
오염되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는
서서히 나타나
결국은
인간과 곡물과
땅은 동시에
죽어갈 것이다.**

리를 끝냈다.

그후로 그날의 논의
들은 내게 우리들의 먹
을거리와 우리 생협에
서 하고 있는 유기농산
물 직거래운동에 대해
다시 한번 꼼꼼히 생각
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생협일에 너무 바빠 이
일을 시작할 때 가졌던

그 거창한 사명감과 방향설정을 항상 적용하고 갈고 닦는데 소홀
했던 것은 아닌가 싶었다.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70%가 공해로 인한 질병이라는 의학계
보고가 그저 허구만은 아닌 듯하다. 우리들이 양조간장이라 부르
는 화학간장은 양젓물을 화학반응을 통해 분리해서 만든 것이라는
사실로 시작해서 식용유는 콩에 화학물질을 쫓아부어 기름을 분리
시킨 것이란다.

L~글루탄산나트륨, ~나트륨이라는 식품첨가물은 가공식품에
안빠지고 들어가는데 이 성분은 단맛이 나는 사탕에조차도 첨가
되어 있어 가공식품 섭취는 곧 ~나트륨 성분을 섭취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요즘 건강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음식
을 싱겁게 조리하여 먹는다고 주장하지만 아무리 싱겁게 먹더라도
가공식품을 즐겨 먹으면 아주 아주 짜게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욱 나쁘다는 것이다.

우리 생협에서는 소비자들을 교육할 때 이런 농약이나 제초제,
화학비료, 식품첨가물의 폐해를 술하게 들려준다. 그러면 많은 사
람들이 “그럼 먹을 것이 하나도 없네요. 안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요?” “모두들 여태 그렇게 먹고도 잘 살아왔는데요! 하면서 눈
의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든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없이 우리들이 매일 섭취해야 하는 주곡류
및 김치거리, 야채, 과일, 육류, 생선 등 모두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할 때, 또 소비자들이 알고도 혹은 몰라서 그저 계속해서
먹게 될 때 짧은 시간내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특집 · 내가 지켜가는 생활환경

인간의 건강체계는 무너지게 되고 그것은 땅과 곡물과 인간이 동시에 죽어가는 것이다.

그런 위기의식들 속에서 소비자들은 건강한 먹을거리를 찾게 되고 농약오염에 주된 피해자인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유기농업의 길을 찾게되어 지금의 유기농산물 직거래 운동으로 발전시켜 왔지만 이 운동 초창기 때를 돌이켜 보면(특히 생산자 편에서) 참으로 모험적인 시작이었다.

어렵사리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어냈더니 열무는 거미줄처럼 너덜거렸고(벌레구멍 때문에) 과일은 썬이 우스웠다. 그래도 유기농산물이라고 소비자들에게 자랑스레 보내면 시장에서 색깔고고 반질거리는 야채들만 보아온 많은 소비자들이 이걸 먹으라고 보냈나, 구경하라고 보냈나.” “농사꾼들 참 뻔뻔스럽다”고 야단이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다.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 당시 근무하던 생협 여직원 안명자씨는 시금치가 많이 남아서 각 소비자단체들한테 더 팔아달라고 할 때는 시큰둥해서 시금치를 잘 안 먹나보다 생각했다가 생산지 견학 내려온 소비자들에게 어차피 남아 갈아엎게 된 시금치니 마음대로 뜯어가라고 하자 머리터지게 싸우며 한주먹이라도 더 뜯어가려고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고 시금치 밭자리 끝에서 울기까지 했다.

참으로 어렵게 어렵게 뜻을 지탱해 온 인간들이었다. 그래도 그 때 당시 ‘이 어렵게 기른 농산물을……’하며 보기 험악한 농산물을 먹어준 몇몇 소비자들과 생협 실무자들 덕택에 오늘날과 같이 유기농산물에 대한 저변 확대가 그나마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요즘 지나치게 무농약, 무공해가 남발한다. 시장을 지나치다 보면 몽땅 무공해이다. 사실 이런 이름의 오용과 남용은 유기농산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확대되었다는 반증이지만 진실로 어렵게 농사짓고 계시는 유기농업 생산자들에게는 큰 해가 되는 일이다.

유기농업이란 ‘단순히 농약을 안친 농산물’이 아니고 ‘땅과 인간과 생명이 합일(合一)하는 농업’이다. 땅의 힘이 맞아야 화학비료와 농약이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수확할 수 있다. 땅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축과 사람의 배설물과 온갖 살아있는 생명체로 발효시킨 퇴비로 충분한 거름을 주어야 하며 그래도 힘이, 생명이 다한 땅은 회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다독거리기를 또 몇해 거듭해

유기농업이란
‘단순히, 농약을
안친 농산물’이
아니라
‘땅과 인간과
생명이
합일하는 농업’
이다.
땅의 힘이 맞아야
화학비료와
농약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자연을 지키고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유기농업 생산자들은
 우리나라 농업의
 나아갈 길이며
 21세기
 환경운동의
 주역인 것이다.

야 비로소 제대로 생명력을 갖춘 땅이 된다.

그리고 벌레나 병에도 인체에 무해한 현미, 식초, 설탕물, 동태뼈부순 것 등의 천연약제품이 사용된다. 농약 안쳐서 시중가격보다 좀더 비싸게 팔아보려는 사업주의 무농약 무



공해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

자연을 지키고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우리 생협 유기농업생산자들은 우리나라 농업의 나아갈 길이며 21세기 환경운동의 주역인 것이다.

우리가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UR에서 WTO로 이어지는 농산물수입개방의 논의들이 농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바로 이웃 대천만해도 잡초만 무성한 논이 수없이 널려 있다. 농사로는 어차피 먹고살기 힘들고 소작을 주려 해도 일할 사람이 없고 팔려고 내놔도 골칫덩어리 땅 누가 사려하지도 않는다.

내 주변에도 “이제 벼농사는 나 먹을 것만 지어야겠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개방 직후에는 물론 수입쌀이 싸겠지만 우리나라 벼 재배면적이 거의 없어진 뒤 쌀값은 그들의 손에 달린 것이다. 그리고 수입농산물과 품질로서 경쟁할 방법은 또한 유기농산물 밖에 없는 것 같다.

나는 상상해 본다.

지금 내가 이 일에 온 열정을 바치는 것처럼 내딸 영신이가 자라서 우리쌀 살리기운동 본부를 세운다면……하고. 끔찍한 일이다. 지금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선택하여야만 한다. 아직 칼자루를 우리가 쥐고 있을 때……, 아직도 기회가 있을 때……. 73

플무생협(약칭)은 수년전부터 충남지역에서 유기농업 농산물을 생산하여 서울·경기수도권, 부천, 성남, 안양 등지에 있는 소비자단체 소비자들과 직거래를 하고 있는 단체이다.